

numbers 제 81호



주요 내용

2021. 01.22

- 이번 주 주제 : [2020년 빅데이터 분석 결과]
- 빅데이터로 본 2020년 한국 교회 4대 이슈
- 최근 언론보도 통계:
[코로나로 인한 경제 양극화 현상]
- 2020년 상위 20% 가구 순자산, 하위 20%의 '167배!'
[한국인의 건강 상태]
- 60대 이상 고령층, 10명 중 3명만 '건강 상태 좋다'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빅데이터 분석

빅데이터로 본 2020년 한국 교회 4대 이슈

- ① 코로나19
- ② 신천지
- ③ 전광훈 목사
- ④ 목사 범죄

2020년은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모든 이슈가 뒤덮였던 한 해였다.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였다. 대다수 교회가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생기고, 또 일부 교회는 정부 지침을 어기면서 코로나19 감염의 주된 경로로 언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또한 2019년 주요 이슈였던 '전광훈 목사'도 2020년에는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하여 이슈가 되었다. 한국 교회는 2020년에 다른 어떤 사회적 기관보다 더 큰 논란의 중심에 섰고,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책임자로 사회적 지탄을 온몸으로 받아야만 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넘버즈] 81호에서는 2020년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여론이 온 라인에서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빅데이터로 본 2020 한국교회 주요 4대 이슈'를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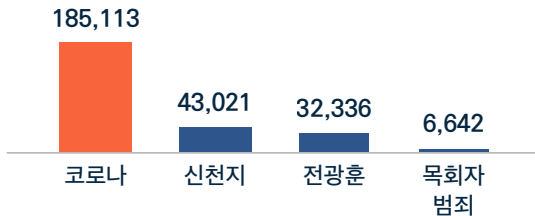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 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 한국 교회 이슈, ‘코로나’가 주도

- 한국 교회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에 게시된 본문 수를 보면 ‘코로나’가 185,1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신천지’ 43,021건, ‘전광훈’ 32,336건 이었다. 이 가운데 ‘코로나’가 압도적으로 많이 언급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코로나 이슈가 한국 교회와 관련된 모든 이슈를 주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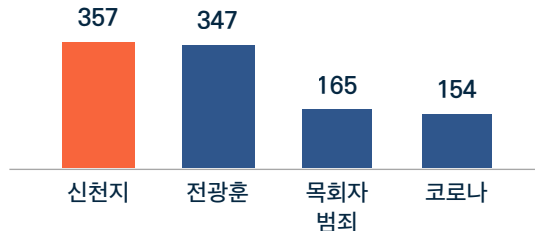
[그림] 이슈별 본문 수 (건)



2. 관심을 끈 이슈, ‘신천지’

- 일반인들의 관심도를 볼 수 있는 본문 수 대비 조회 수 분석에서는 ‘신천지’가 357%로 1위, ‘전광훈’이 347%로 2위로 나타남. 그에 비해 ‘목회자 범죄’와 ‘코로나’는 각각 3위, 4위를 차지하였다. 신천지 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신천지가 대중적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되면서 관심도가 급증하였다.
- 단순 본문 수가 많았던 ‘코로나’는 타 이슈에 비해 관심도는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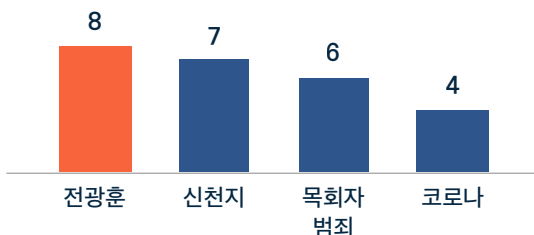
[그림] 관심도 비교(12개월간의 총 조회 수/총 본문 수 : 조회수는 네이버, 다음카페에 한함) (%)



3. 가장 많이 참여한 이슈, ‘전광훈 목사’이슈,

- 일반인들의 참여도를 보기 위하여 본문 수 대비 댓글 수를 분석했는데, 본문에 대해 댓글로 참여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이슈가 사회적으로 반응을 크게 불러 오고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참여도에서는 ‘전광훈 목사’가 8%(1위)로 나타났다. ‘전광훈 목사’ 키워드는 광복절 집회, 코로나19 확산과 연결되었다. 코로나19 확산이 정치적 이슈와 연결되면서 일반인들도 이에 대해 의견 개진이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참여도 비교(12개월간의 총 댓글 수/총 본문 수 : 조회수는 네이버, 다음카페에 한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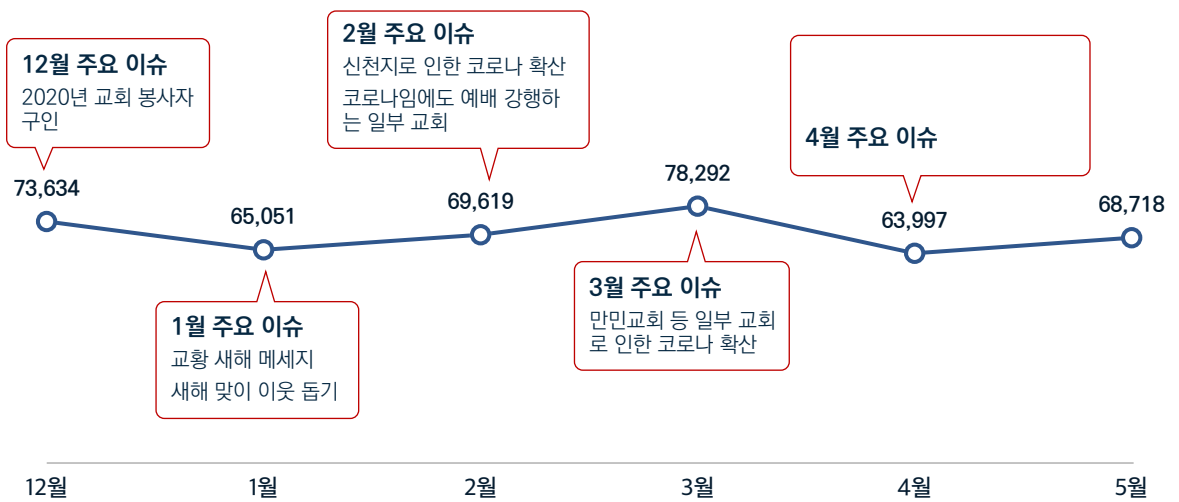


4. 상반기는 ‘신천지’가, 하반기는 ‘전광훈 목사’ 이슈가 주도

- 2020년 한국 교회(교회, 기독교, 목사)와 관련된 월별 버즈량은 상하반기가 뚜렷한 대조를 보였는데, 상반기는 평균 약 6만 건 수준이었으나 3월에 특히 버즈량이 78,292건으로 늘어났는데, 주로 코로나19가 교회와 신천지를 통해 확산된다는 내용이었다.
- 하반기에는 평균 약 7만 건 수준이었으나 8월 버즈량은 95,990건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버즈량을 기록했는데 전광훈 목사의 광화문 집회와 코로나19 확진이 주된 내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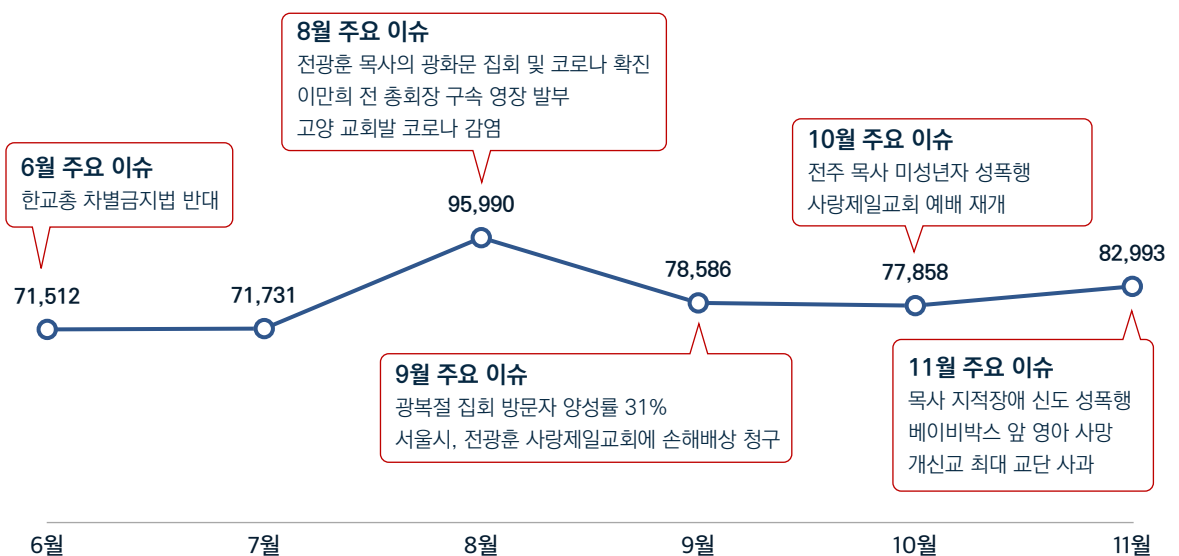
[그림] 빅데이터 버즈량 월별 추이 분석(2019.12 ~ 2020.05)

(건)



[그림] 빅데이터 버즈량 월별 추이 분석(2020. 06-11)

(건)



4대 이슈 세부 분석

1



4대 이슈 1, ‘코로나19’

- 2020년 명륜교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및 신천지의 집단 감염을 시작으로 12개월 동안 지역 교회를 통한 코로나 확산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다.
- 특히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는 방역 지침을 어기고 현장 예배를 강행하고 광복절, 개천절 집회를 진행하여 코로나 확산 주범이라는 비난을 받았으나, 일부 채널에서 집단적으로 전광훈 목사를 옹호하는 댓글이 확산하였다.
- 주목할 것은 데이터량의 상승과 하락의 진폭은 있어도 전반적으로 기독교/교회/목사 연관 이슈로서 코로나19 확산 이슈 본문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즉, 코로나19로 인해 기독교/교회/목사 이미지가 상당한 영향을 받았음을 시사한다.

- 실제로 달린 댓글을 보면 코로나19 확산이 교회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불신을 불러온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고 기독교라면
식사나 차를 마시지도 말고, 승용차도 함께 타면 안되겠다.
그래야 내 가족 내 이웃, 나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 같다.
기독교도는 무조건 피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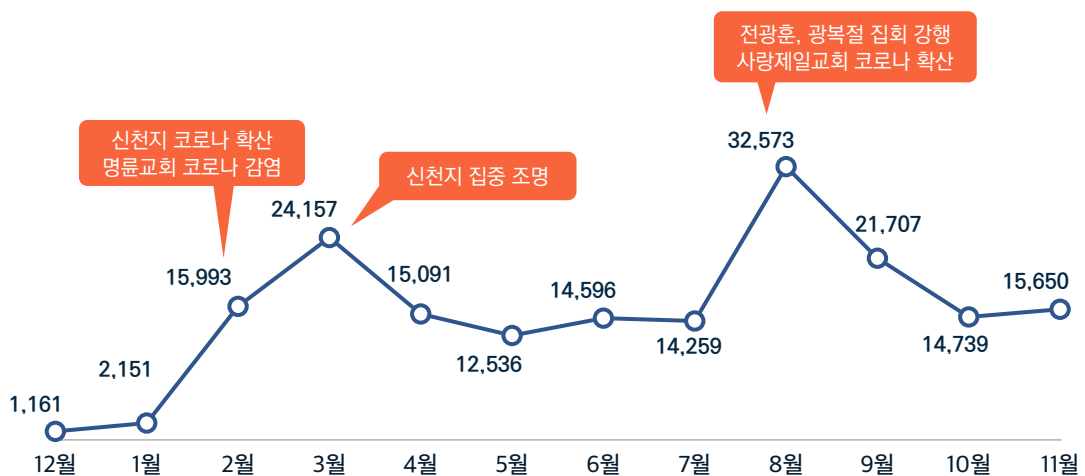
“예배를 당분간 온라인으로만 진행하게 강력히 제재할 필요성이 있다”

“기독교인에게 목걸이를 걸게 하자. 피해갈 수 있게!”

- 코로나19 관련 댓글 중 발췌

[그림] 코로나19 관련 본문 월별 추이(총 댓글 수+총 본문 수)

(건)



신천지 코로나 확산
명륜교회 코로나 감염

신천지 집중 조명

전광훈, 광복절 집회 강행
사랑제일교회 코로나 확산

2



4대 이슈 2, ‘신천지’

- 2020년 2월부터 3월에 걸쳐 신천지 발 코로나19 확산이 대구를 중심으로 급증했는데, 이에 대한 책임론과 더불어 신천지 측의 역학 조사에 대한 비협조적인 자세로 전 국민의 공분을 사는 글들이 정점을 이루어 2월에 10,944건, 3월에 9,869건이 게시되었다.
- 8월에는 이만희 구속이 이루어진 시점으로 버즈량이 증가했다.
- 신천지는 2019년에도 주요 이슈로 꼽혔는데 2019년에는 신천지의 부도덕적인 포교방식(ex. 일반 교회 신도 빼오기, 가족과의 분리, 거짓말로 접근 등)에 대한 고발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며, 2020년에는 신천지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이 주요 내용이었다.

- 신천지를 통한 코로나19 확산은 신천지를 모르던 일반인에게도 신천지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는데 이 과정에서 신천지와 개신교를 구분하지 않고 개신교 전체를 싸잡아서 비난하여 개신교에 대한 사회적 질타가 잇따랐다.

“신천지랑 똑같은 사람들이다. 종교생활도 제대로 해야 종교인이자 한심하다”

“신천지와 교회 뭐가 다르지? 코로나 전염성이 크다는 건 똑같다.

전광훈의 태극기집회에 함께 했던

항교안이 나서서 교회를 설득해야지

야당 대표가 교회 집합예배를 부추기는 발언을 하다니 너무 절망적이다”

“신앙인은 개뿔. 예수쟁이들아. 제발 정신 좀 차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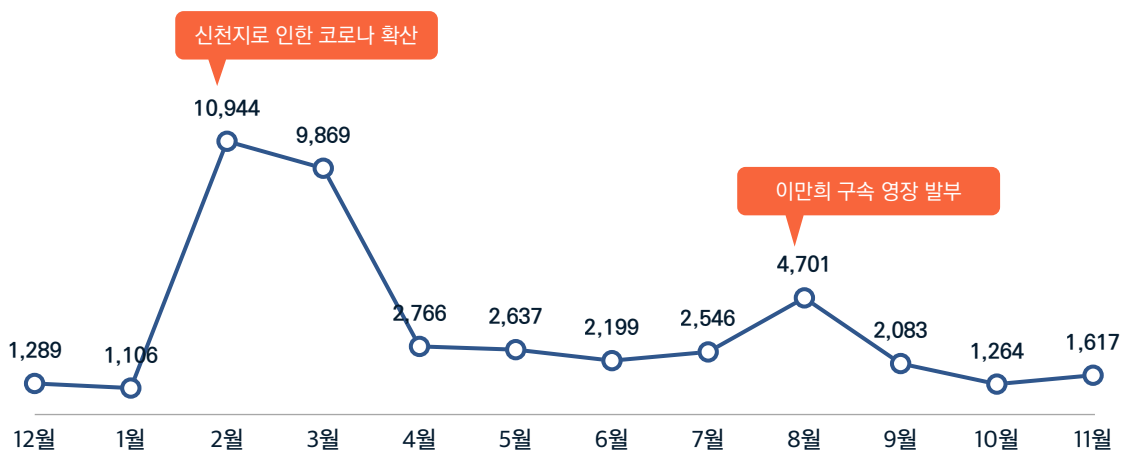
신천지만 이단이나. 지들끼리만 뭉치고 팔아주고

결혼하고 목사 말 한마디에 매달리는게 이단아니냐”

- 신천지 관련 댓글 중 발췌

[그림] 신천지 관련 본문 월별 추이(총 댓글 수+총 본문 수)

(건)



3



4대 이슈 3, ‘전광훈 목사’

- 전광훈 목사 관련 글들은 8월 이전에는 매월 1,000건 이하를 기록할 정도로 낮았으나 8월에 전광훈 목사가 방역지침을 어기고 광복절 집회를 강행하여 논란을 일으켰고 사랑제일교회에서 감염자가 속출하면서 버즈량이 13,536건으로 급증하였다.
- 전광훈 목사는 반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상징 인물로서 그의 말과 행동은 정치적으로 해석되어 여론의 옹호와 반대가 뚜렷하게 갈렸다.

- 교회를 둘러싼 사회적 이슈에 전광훈 목사가 한기총이라는 직함을 갖고 전면에 나서면서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로 전광훈 목사가 자리를 잡았다. 그래서 전광훈 목사에 대한 비난이 그를 비난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한국 교회를 비난하는 데까지 이어졌다.
- 정치적 이슈와 연결됨으로써 전광훈 목사를 옹호하는 댓글까지 게재되었다.

-비판 댓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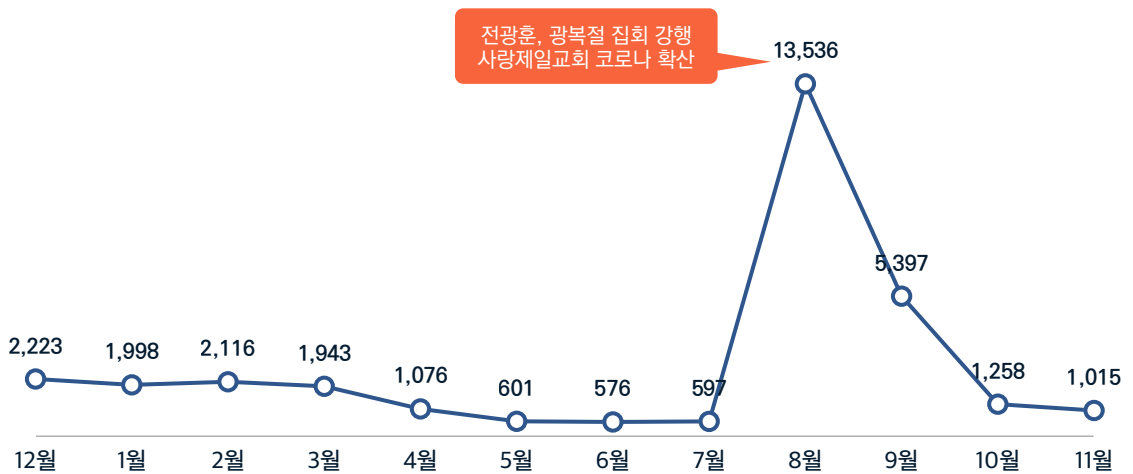
“이런 일은 대표회장 한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기독교 총 연합회와 한국 개신교의 문제입니다”
 “이 양반은 진짜 목사라고 부를 가치를 1도 느낄수 없는 정치 선동가요 흑세무민을 일삼는 현대판 라스푸틴이다”

- 옹호 댓글-

“이낙연씨! 전광훈 목사가 잘못된거라면 코로나초기에 대응 못해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든 청와대에게도 한마디 해주셔야 삼권분립이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닌가요?”
 “정부 비판하던 전광훈 목사님 잡아 넣더니 이젠 교회 때려잡기네... 공무원이 다다다다 붙어 밥먹는거 회식하는거 그런것도 동일하게 때려잡아야지”

- 전광훈 관련 댓글 중 발췌

[그림] 전광훈 목사 관련 본문 월별 추이(총 댓글 수+총 본문 수) (건)



4



4대 이슈 4, ‘목사 범죄(성범죄)’

-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1년에 걸쳐 꾸준히 목회자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 2020년에 목회자 범죄 게시글의 특징은 미성년자 그루밍 성폭행이 부각되었다는 점이다. 목회자 성범죄는 2019년에도 주요 이슈였는데 2020년에 ‘그루밍’ 성폭행이 이슈가 되었다는 것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성범죄가 교역자의 위치를 악용한 목회자들의 범죄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심각성을 인지하였다는 것을 시사한다.

- 목사의 범죄(성범죄)는 해마다 심심치 않게 언론을 나올만큼 한국 교회의 뿌리깊은 타락과 범죄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목사 전체와 개신교가 타락했다고 비난받고 있음.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고 써있을텐데? 딴 사람도 아니고 목사가 잘하는 짓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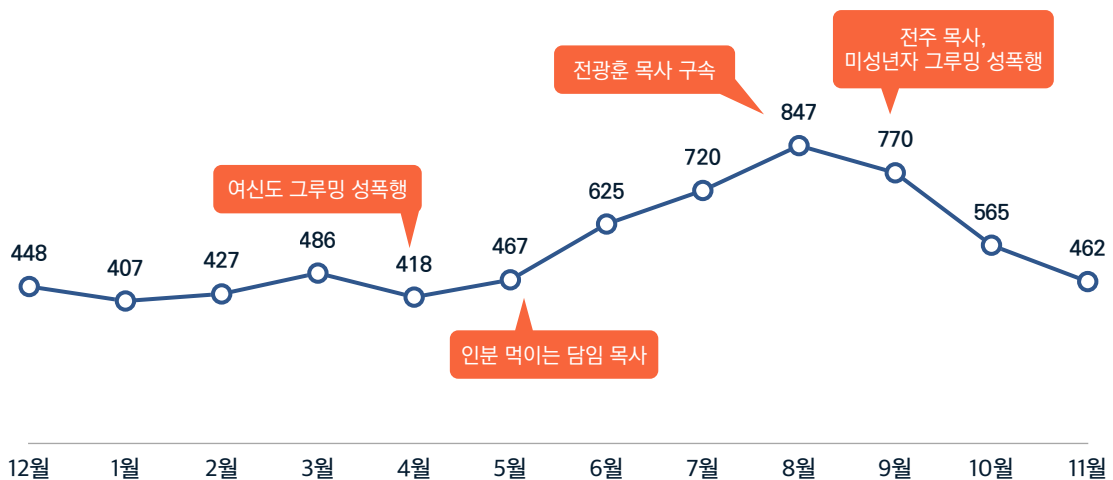
“축복기도의 방법이 성폭행이라니.

개신교, 개독교가 예수팔아 돈 벌고, 예수팔아 강간하고,
종교의 자유라는 권리 앞에 못하는 짓거리가 없네”

- 목사 범죄 관련 댓글 중 발췌

[그림] 목사 범죄 관련 본문 월별 추이(총 댓글 수+총 본문 수)

(건)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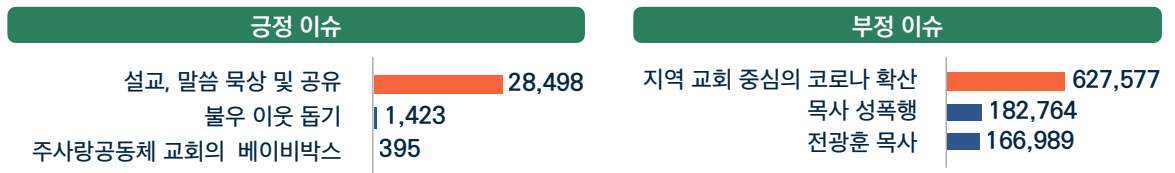


이웃돕기, 교회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심어줘

- 기독교 관련 주요 사회적 이슈 외에 말씀 묵상, 설교 등의 신앙적 게시글을 ‘긍정’으로 모두 포함시켜 감정 분석을 해보면 ‘긍정’ 47% > ‘부정’ 41% > ‘중립’ 12% 의 순으로 나타났다.
- 긍정 이슈에서 주목된 것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예배가 증가하면서 설교 관련 게시글이 28,498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 기독교/교회/목사 관련 글로서 긍정적인 활동으로 언급된 것은 이웃돕기 활동이었다. 교회가 이웃돕기 등에 나설 때 기독교/교회/목사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는 반증이다.
- 부정 이슈 가운데 코로나19 확산과 전광훈 목사 건은 사회적 상황에 따른 이슈이지만, 목사 성폭행은 시기를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표출되는 부정적 이슈였다.

[그림] 교회 감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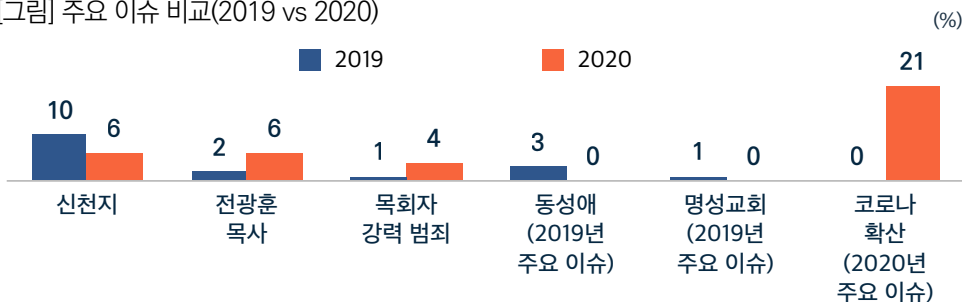
(건)



2019년과 2020년 빅데이터 비교 분석

- 2019년과 2020년의 동일한 주요 이슈는 신천지, 전광훈 목사, 목회자 범죄였는데 목회자 범죄를 제외하면 코로나19와 연결되는 이슈였다. 다양한 이슈가 발생한 2019년과 달리 2020년에는 코로나19가 한국 교회에 대한 온라인 여론을 압도했다.
- ‘신천지’ 이슈의 경우 2019년에는 신천지의 비도덕적인 포교활동으로 인한 기독교 및 사회 전반의 고발에 대한 내용과 신천지를 옹호하는 내용의 대립이 주된 화두였으나, 2020년에는 신천지로 인한 코로나 대규모 확산에 대한 이슈가 대부분이다.
- ‘전광훈 목사’이슈의 경우 2019년에는 문재인 정부 비판, 세월호 유가족의 전광훈 고발 등 정치적 이슈가 주된 화두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 확산에도 사랑제일교회가 예배를 강행하여 이슈가 되었으며, 코로나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보수단체와 함께 광복절, 개천절 집회를 진행한 것에 대한 정치적 이슈가 함께 언급이 되고 있다.
- ‘목회자 범죄’는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목사의 성폭행을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특히 2020년에는 ‘그루밍’이라는 연관어의 빈도수가 증가했다.

[그림] 주요 이슈 비교(2019 vs 2020)





시사점

이번 빅데이터 분석을 보면, 가장 관심을 끈 이슈는 ‘신천지’였다. 2019년 빅데이터 분석에서도 ‘신천지’가 주요 이슈였는데 그 때는 신천지의 포교 방법이 문제가 되었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19 감염 경로로서 신천지가 문제가 되었다. 국민들에게 신천지는 생소한 존재였는데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해서 신천지를 알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었다. 비기독교인들은 신천지나 정통 교회나 다 같은 기독교로 생각하게 되었고 그것이 교회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평소 교회는 이단 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해야 한다. 교단이나 교회연합기관에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는 교리적 측면에서 이단의 문제점을 드러내야 한다면, 국민을 대상으로는 이단의 부도덕성, 반사회성을 알려서 교회와 선을 긋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정통 교회가 이단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입지 않게 된다.

4대 이슈 가운데 가장 의견이 많이 제기된 것은 ‘전광훈 목사’ 이슈이다. ‘전광훈 목사’도 2019년에 빅데이터 분석에서 나타난 이슈였다. 2019년에는 전광훈 목사의 정치적 언행이 이슈였다면 2020년에는 성격이 복잡해졌다. 전광훈 목사의 정치적 행동에 코로나19 감염이 덧붙여지면서 전광훈 목사 이슈는 교회-코로나-정치 투쟁이라는 요소가 섞이게 되었다. 전광훈 목사의 정치적 행동을 곱지 않게 보던 사람들은 코로나19 상황임에도 광복절 집회를 강행하고 사랑제일교회에 집단으로 모여서 코로나19에 감염이 되고 확산시킨 것에 대해 교회를 비난하였다. 반면에 전광훈 목사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코로나19 감염에 대해 사과보다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문제가 있다고 공격함으로써 일반 대중에게는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 주었다. 일부 교회나 기독교인이 대중의 상식과 동떨어진 발언이나 행동을 할 때 대중은 그것을 그들만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한국 교회 전체의 문제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교회가 사회적 발언이나 행동을 할 때는 대중의 상식에 기초해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사회로부터 멀어지고 일종의 ‘게토(Ghetto)’가 되고 전도의 문은 닫히게 된다. 교회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또 전도를 위해서도 사회적 상식을 회복해야 한다.

또 다른 심각한 이슈는 ‘목회자 성범죄’이다. ‘목회자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나오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문제가 발생하면 ‘맘카페’를 중심으로 이슈가 확산되면서 젊은 여성들에게 목사와 교회의 도덕적 이미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2020년에는 목사의 그루밍 성범죄가 많은 것으로 이번 빅데이터 분석에서 드러났다. 그루밍 성범죄는 목사와 성도 간에 엄격한 권위적 관계가 있는 곳에서 많이 일어난다. 목사의 권위에 무조건적인 순종에 길들여진 성도는 목사의 무리한 요구를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도 모르게 순종하게 된다. 그러므로 목사가 절대 권위를 갖는데서 내려와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성범죄의 토양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방법이 된다. 여기에 더하여 일반회사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처럼 목사를 대상으로 성희롱 혹은 성 문제 교육을 실시할 필요도 있다. 목사가 성도를 성적 대상으로 대하면 성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높는데, 성희롱 예방 교육을 통해 평소 자신이 여성을 무의식적으로 성적 대상으로 여기는 언행을 발견하게 되고 스스로 자제하게 되면 성범죄의 가능성은 훨씬 낮아질 것이다.

최근 언론 보도 통계

1. 2020년 상위 20% 가구 순자산, 하위 20%의 '167배!'
2. 60대 이상 고령층, 10명 중 3명만 '건강 상태 좋다'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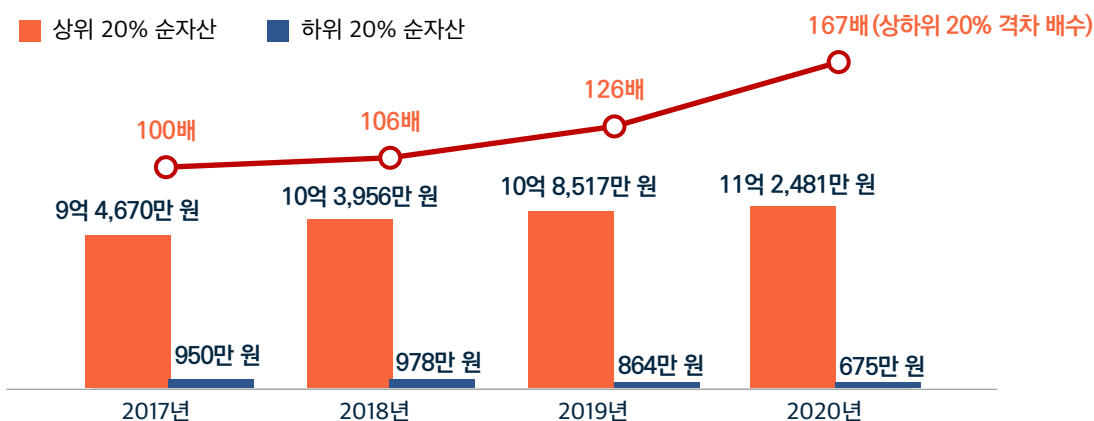
코로나로 인한 경제 양극화 현상



2020년 상위 20% 가구 순자산, 하위 20% 가구의 '167배!'

- 통계청이 작년 12월에 발표한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에 따르면, 순자산(총 자산 - 총 부채) 기준 '상위 20% 가구' 순자산은 11억 2,481만 원으로 2019년보다 4% 증가한 반면, '하위 20% 가구'의 순자산은 675만 원으로 2019년보다 22% 감소하여, 코로나19 기간 중 양극화가 더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 상·하위 20% 간 차이는 167배로 2019년보다 126배보다 더 벌어져 우리나라 사회 경제적 양극화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우리나라 가구 평균 순자산(상위 20% vs 하위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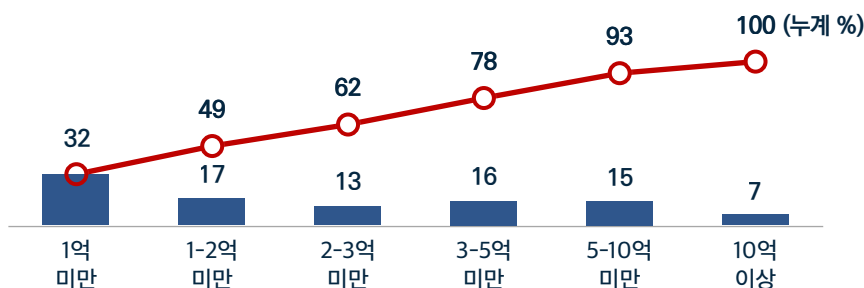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 2020.12.17.(연도별 자료는 Kosis 통계 자료임)
 중앙일보, '벼락거지' 탄생시켰다, 정부가 확 벌려놓은 인생격차 2021.01.13
 (<https://news.joins.com/article/23969131?cloc=Joongang-newsdigest-top>)
 ** 자산과 부채는 2020.3.31.일 기준, Note) 순자산 = 자산액-부채액

● 전체 가구의 62%가 3억원 미만의 순자산을 보유하며, 10억원 이상인 가구는 7%임

- 2020년 3월말 기준 순자산 보유액이 '1억 원 미만 가구' 32%, '1~2억 미만 가구' 17% 등으로, '3억 원 미만' 가구가 전체 가구의 62%를 차지하며, '10억 원 이상 가구'는 7%로 나타났다.

[그림] 가구당 순자산 보유액 구간별 가구 분포(2020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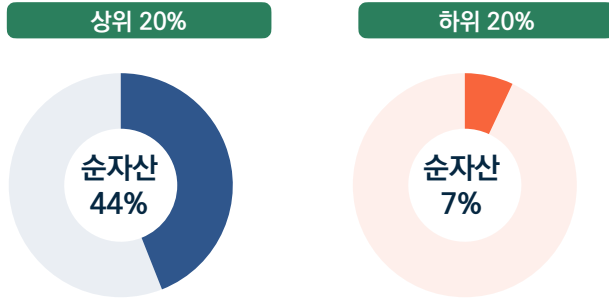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 2020.1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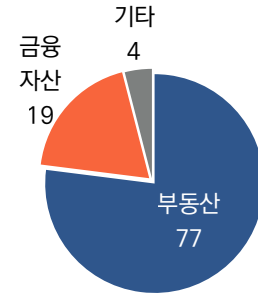
● '상위 20% 가구'가 전체 가구 순자산의 44% 차지!

- '상위 20%'가 보유한 순자산의 비율은 전체 가구 중 4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하위 20%'가 차지하는 순자산 비율은 7%로 나타났다.
- '상위 20%' 가구의 자산 구성을 보면, '부동산'이 77%로 압도적이며, '금융자산'은 19%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수록 상하위 계층간 격차가 더 벌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말하고 있다.

[그림] 2020년 가구당 순자산 점유율(상위 20% vs 하위 20%)



[그림] 순자산의 구성(상위 20%)



*자료 출처 : 통계청,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 2020.12.17.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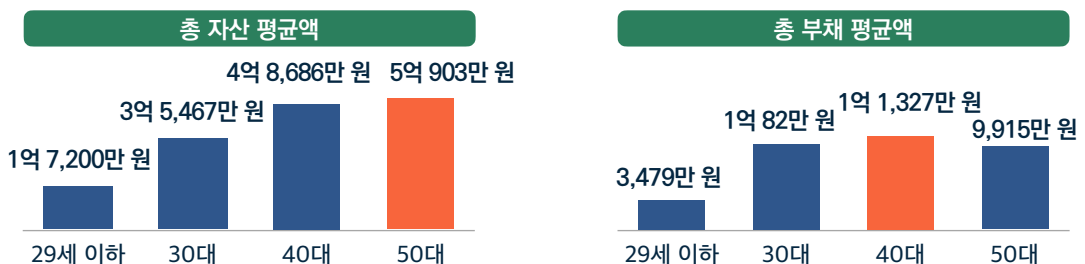
우리나라 가구 평균 자산 3.1% 증가, 부채는 4.3%로 더 증가!

- 2020년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자산액'은 4억 4,543만 원으로 2019년보다 3.1% 증가하였고, 가구 당 '평균 부채액'은 8,256만 원으로 역시 2019년보다 4.3% 증가했는데, 부채 증가 비율이 자산 증가 비율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별로 자산 보유액을 보면, '50대 가구'가 평균 5억 903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채는 '40대 가구'가 평균 1억 1,327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림] 가구당 자산 보유액(2019 vs 2020)



[그림] 연령별 가구당 자산/부채 평균 보유액 (2020)



*자료 출처 : 통계청,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 2020.12.17.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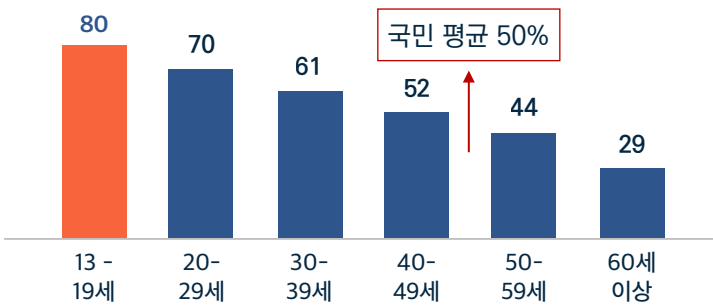
한국인의 건강 상태



60대 이상 고령층, 10명 중 3명만 ‘건강 상태 좋다’

- 우리 국민 만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를 조사한 결과(통계청, ‘2020 사회조사 결과’), ‘10대’ 청소년의 대부분이 ‘건강 상태가 좋다’(80%)고 인식하고 있으나, ‘60대 이상’ 고령층은 단지 29%만이 좋다고 인식해 큰 격차를 보였다.
- ‘건강 상태가 좋다’는 응답은 국민 평균 50%로, 50대로 접어들면서 건강에 대해 긍정 인식이 절반 이하로 급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연령별 ‘건강 상태 좋다’ 응답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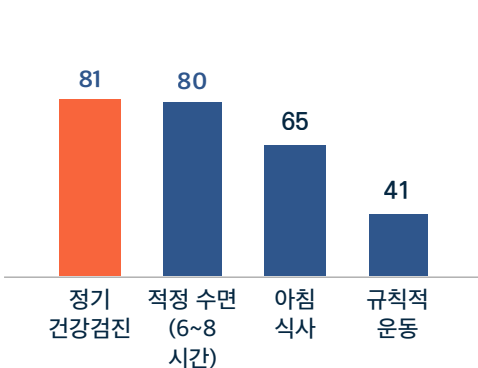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2020 사회조사 결과’ 2020.11.18.
(전국 만 13세 이상, 18,543가구 내 37,750명, 면접 조사, 자기기입식 및 인터넷 조사, 2020.05.13.-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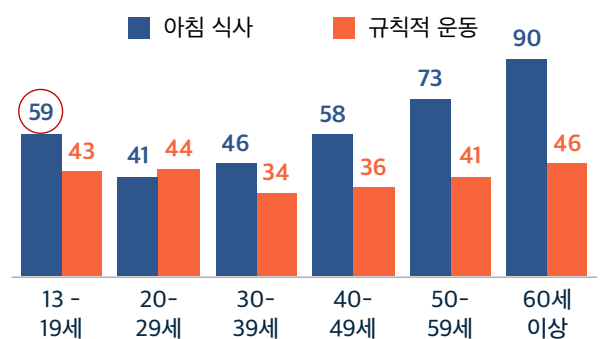
● 10대 청소년 5명 중 2명가량, ‘아침 식사 안 먹는다!’

- 한국인이 건강 관리로 실천하는 사항으로는 ‘정기 건강검진’ 81%, ‘적정 수면’ 80%로 응답한 반면, ‘아침 식사 하기’(65%)와 ‘규칙적인 운동’(41%)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특히 성장기에 있는 10대 청소년의 경우 5명 중 2명가량은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건강 관리 방법별 실천율 (%)



[그림] 아침 식사/규칙적 운동 ‘실천한다’(연령별) (%)



*자료 출처 : 통계청, ‘2020 사회조사 결과’ 2020.11.18.
(전국 만 13세 이상, 18,543가구 내 37,750명, 면접 조사, 자기기입식 및 인터넷 조사, 2020.05.13.-28)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사
회
일
반

[국민 4명 중 1명 '정신질환' 경험](#)

조선일보_2021.01.14.

[서울에 사는 여성, 남성 임금의 64%만 받았다](#)

BBC코리아_2021.01.19.

[서울 여성 하루 가사노동 2시간26분...남성은 41분](#)

연합뉴스_2021.01.17.

[20대 청년, 10명 중 7명이 1인 가구...65%는 '월세' 산다](#)

경향신문_2021.01.18

[1인당 나홀로 한 장 꼴로 샀다. 작년 로또 판매 사상 최대](#)

조선일보_2021.01.14.

[한국갤럽 뉴스채널 선호도 'KBS17%-YTN14%-MBC12%-JTBC10%'](#)

플리뉴스_2021.01.18.

[상위 0.01% '매너온도 99도'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경향신문_2021.01.16.

["한국 군사력 세계 6위..북한은 25위→28위로 떨어져"](#)

연합뉴스_2021.01.16.

교
육

[벚꽃 피는 순서로 망한다? 영호남대 78% 사실상 미달](#)

중앙일보_2021.01.18.

[대졸취업 9만명 늘 때 고졸 18만명 줄어... 공기업 절반 '고졸채용 0'](#)

조선일보_2021.01.18.

['내신 안되니 차라리 자퇴' 10대 검정고시 3만명](#)

매일경제_2021.01.15.

경
제

[외환위기 때만큼 힘든 2030..더 힘든 4050](#)

머니투데이_2021.01.17.

[압구정동 아파트값 평균 30억원 돌파 초읽기...사상 최고가](#)

한국일보_2020.01.18.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경제

[국민 25% “최고 재테크는 주식” 6개월새 2배 늘었다](#)

조선일보_2021.01.15.

[외국인 근로자 58만여명 연말정산...평균연봉 2천732만원](#)

연합뉴스_2021.01.21.

코로나 19

[통계로 보는 코로나19 리포트 1](#)

[통계로 보는 코로나19 리포트 2](#)

경향신문_2021.01.17,19.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60세 이상이 95%](#)

한겨레_2021.01.18.

[영세기업 코로나 못버티고...파산 역대 최다](#)

매일경제_2021.01.20.

[비정규직 37% 코로나 실직...77%는 실업급여도 못받아](#)

연합뉴스_2021.01.17.

기후 / 환경

[2020년 지구, 이렇게 더웠다... “가장 더운 3개년 중 한 해”](#)

경향신문_2021.01.15.

[온실가스 못 줄이면 2100년까지 한반도 기온 7도 ↑ '인류위기'](#)

연합뉴스_2021.01.18.

개신교

['감신 0.39:1', '고신 0.67:1' 주요 신학대 정시 '미달'](#)

뉴스앤조이_2021.01.19.

[목회자 99%, 교회 혁신 필요자](#)

연합뉴스_2021.01.18.

[한교총 한국교회 연합 관련 조사결과 발표](#)

기독일보_2020.01.21.

이슈 큐레이션
[코로나로 인한 학습격차]

[학습격차요? 속 편한 사람들 얘기죠. 밥도 못 챙겨 먹이는데...](#)

한국일보_2021.01.19.

[수업일수 채우기 바빴을 뿐, 학력 그 이상을 잃었다](#)

한겨레_2021.01.20.

[155분 vs 83분...집값 차이가 '초등생 학습시간' 격차로](#)

한겨레_2020.01.13.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자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백주년기념교회, 서현교회, 서울서문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안산제일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륜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주안장로교회, 진주삼일교회, 창동염광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광주지식포럼, (재)기독교선교햇불, (사)사단법인아시아미션, (사)새길과새일, 알파코리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한목회, 제이제이경제연구소, 지앤컴리서치, 한국 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재)CBS, CCC 사역연구, CBMC 행복한지회 (가나다 순)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동광에스아이, (주)마뜨,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벽산,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주)예중세무법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튼건강과학, (주)트로인, (주)하츠,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후원 개인 | 고재환, 금교성, 김관상,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성렬, 김성은, 김시은, 김영훈, 김윤철, 김은선, 김재욱, 김주룡, 김현모, 김형태, 김홍일, 김흥기, 남성태, 류지성, 박노석, 박미경, 박영철, 박재찬, 박준상, 박진규, 박진철, 박우빈, 박세용, 박홍래, 반기민, 배수정, 석승호, 송섭, 안정호, 안태근, 엄정석, 여삼열, 유성민, 유형창, 윤여민, 이덕희,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영선, 이완중, 이인성, 이정규, 이창준, 이춘봉, 이현식, 이훈희,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우성, 장형철, 전치영, 정종섭, 정준, 정희수, 조용민, 조창오, 최상헌, 최준혁, 최은아, 함용태, 홍혜숙(가나다순)

신규 후원 | 꿈마을엘림교회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역대 [넘버즈] 주요 내용

1-68호

- 제 1호 | 인구 절벽, 그리고 개신교 인구 변화
- 제 2호 |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사회적 신뢰도, 갈등지수) | 종교 스위칭
- 제 3호 | 모바일 시대가 온다(개신교인 미디어 이용 실태) | 청년층 운세보기 | 황혼이혼
- 제 4호 | 나홀로 Life, 나는 혼자여도 좋다 |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
- 제 5호 | 다문화 가족,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다(이주 여성 실태) | 북한 비핵화 인식
- 제 6호 | 위기의 기독교인 대학생(대학생 종교 실태) | 불법 촬영(몰카) 실태
- 제 7호 | 하루 13명, 술 때문에 죽는다(음주실태) | 청년 취업 실태
- 제 8호 | 여름휴가, 어떻게 보내십니까(교회 수련회 통계) | 남성 육아휴직
- 제 9호 | 유튜브 훌릭 | 한일 분쟁
- 제 10호 | 흡연, 성인 남성 하루 100명 죽는다, 55세 이상 고령층 취업 희망자
- 제 11호 | 기독교인 4명 중 1명, 교회 안 나간다, 한국인, 정신·심리 관련 조사
- 제 12호 | 북한이탈주민, 연 가구 소득 2,000만 원 미만 40%, 2019 대한민국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
- 제 13호 | 추석, 즐겁지만 여성에게는 힘든 명절, 89% | 2040 아바 육아경험, 고령화 통계
- 제 14호 | 한국인, 인간관계를 축소하고 있다 | 함께 출산율, 전국 초중생 방과후 학원 이용 실태
- 제 15호 | 한국인 행복도, '돈'에 과도하게 영향받고 있다 | 임금 근로자 연봉 상하위 격차 14.4배
- 제 16호 | 한국인 1일 37명 자살 | 우리나라 기부 참여율 40%(최근 1년간)
- 제 17호 | 장애인, 문화 활동 거의 못하고 있다 | 한국 부자 보고서 분석
- 제 18호 | 장애인 실태 2, '장애인 근로자, 고용 기업의 만족도 높다' | 미국 기독교인 의담임 목사 인식 조사, 한국 국가 경쟁력 순위
- 제 19호 | 한국 사회 혐오, 심각하다 96% | 100세 시대 인식조사
- 제 20호 | 특별판(1-19호) 종합 정리
- 제 21호 | 개신교인, 전광훈 목사 긍정적 평가 13% | 한국 사회 공정성 평가 조사
- 제 22호 | 당신은 '꼰대' 입니까? |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 주요 여론조사 통계
- 제 23호 | 학벌 중심 사회, 국민 절반 가까이 학력 콤플렉스 '느낀 적 있다' | 평생직장 인식 변화, 우리나라 커피 소비 인식 조사 결과
- 제 24호 | 가족 호칭, '가부장 문화가 반영됐다' 72% | 한국인이 좋아하는 인물편(분야별)
- 제 25호 | 한국인의 결혼·가정관 빠르게 변하고 있다 | 한국인이 좋아하는 브랜드(일반 국민 vs 개신교인 비교), 우리 국민 절반은 '나는 가난하다' 생각한다)
- 제 26호 | 개취를 아십니까? | 전세계 기독교 청년의 교회 인식 조사, 한국인의 기대 수명
- 제 27호 | 한국인의 기부, 불투명성이 발목을 잡는다! | 2019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 조사 결과, 1인당 노동소득과 소비 간 비교
- 제 28호 | 2019 [넘버즈] Top 7
- 제 29호 | 2020년 1인 가구 대세 시대 | 미국 기독교인, 교회 출석 이유, '목사의 설교 내용' 절대적임 | 한국 사회, 빈익빈 부익부 현상 뚜렷하게 나타남
- 제 30호 | 50년 뒤 한국, '국민 2명 중 1명이 노인' | 한국인 새해 경기 및 실업률 전망, 작년 전국시도지사 직무 평가 결과
- 제 31호 |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대상, '가족' | 2020 새해 목표, 성격 변화
- 제 32호 | 이제는 착한 소비의 시대! | 2019년 한국 파송 선교사 현황, 한국인 4명 중 1명 '사소한 일에 화가 난다'
- 제 33호 | 빅데이터로 본 2019 한국 교회 | 10대 청소년, 관심·흥미 주제 찾을 때, 유튜브가 압도적, 한국인 5명 중 1명 '중증 소외감을 느낀다'
- 제 34호 | 생활의 기쁨, 가족보다 '반려동물'에서 더 얻는다! |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
- 제 35호 | 외로운 대한민국, 한국인 고독 지수 78점 | 밀레니얼 세대 직장인 분석
- 제 36호 | 코로나19 관련 개신교인 여론조사 결과 분석 | 코로나19 관련 국내 주요 신학교 권고의 글 모음
- 제 37호 | 가짜 뉴스, 심각하다 89% | 총선 40일 현재 국민 여론
- 제 38호 | 한국인,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오래 산다! | 우리나라 현황 통계 분석, 코로나19 이후 일상의 변화들
- 제 39호 | 한국인 정치 만족도 16% | 우리나라 대학생 81%, 고등학교는 사학을 건전장, 미혼자, '주례 없는 결혼식' 선호도 67%
- 제 40호 | 악플도 범죄다, 65% |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5부제 찬성 68%

- 제 41호 | 성인 2명 중 1명,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있다' | 우리 국민 필수와 선택
- 제 42호 | '코로나 19의 한국 교회 영향도 조사' 결과
- 제 43호 |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 신뢰도 올랐다! | 40년간 국내 주요 물품/서비스 가격 변화, 한국인의 의심병
- 제 44호 | 한국의 여성 가사노동, 부담스럽다 57% | 코로나19 관련 미국 여론조사 분석 결과
- 제 45호 | 한국의 아동 행복도, OECD 최하위권! | 21대 총선 결과 분석
- 제 46호 | 한국의 부모, '다시 태어나도 내 자녀의 부모로 태어나고 싶다' 69% | 코로나19 관련 6개국 비교 조사 결과, 외모 성형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 제 47호 | 우리의 가난한 이웃, 한부모 가정 | 기혼자 30%, 불륜 경험 '있다', 트로트 매력 '친근한 멜로디' 32%
- 제 48호 | 우리들의 아버지, 대한민국의 퇴직자들의 삶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통계로 보는 언택트 사회 전망
- 제 49호 | 새로운 소모임 공동체 살롱 문화의 부활!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조사, 역사 왜곡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 제 50호 | 우리 사회 갑질, '심각하다' 86% | 코로나가 가져온 식품 소비의 변화, 미국 개신교인들의 목사 설교 시간에 대한 인식
- 제 51호 | 일반 국민, 온라인 종교 활동 '삶에 긍정적 변화다' 53% | 코로나 이후 직장인 점심식사 관련 인식 변화, 최근 10년 간 범죄 유형의 변화
- 제 52호 | 코로나19에 대한 목회자 인식 조사 결과(예장통합 교단)
- 제 53호 | 한국 교회 유튜브 최대 조회수는 '찬양 콘텐츠' | 한국인 5명 중 1명 '외롭다', 교회 학교 여름 사역 계획 조사
- 제 54호 | 한국 교회 리더십, 디지털 정보 격차 문제에 부딪히다! | 체벌하는 한국 부모, 72% | 올 여름 휴가, 코로나19로 인해 '안전한 바캉스 선택' 64%
- 제 55호 | 한국 개신교, '가족 종교화' 되고 있다! | 코로나19 확진자, '아무런 증상 없었다' 36%
- 제 56호 | 우후죽순 '○○데이' 문화, '소통의 계기가 된다' 50% | 서울 초중고학생, '사교육 받고 있다' 78%, 레깅스, '최근 한 달간 입은 적 있다' 37%, 내년 최저임금, '8,720원'
- 제 57호 | 직장 내 성희롱 실태, '지방 자치 단체'가 가장 심각! | 한국인, '뉴스 신뢰도' 세계 40개국 중 최하위, 청년층(19-34세),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는 5명 중 1명 꼴(19%)
- 제 58호 | [미래 종교] 2070년 이후 이슬람교가 기독교를 제치고 세계 종교 1위로 부상! | 미국, 매주 교회 가던 개신교인 3명 중 1명,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안 간다'
- 제 59호 | '국민 절반(48%), 코로나 블루 상태에 놓여 있다' | 밀레니얼 세대, '집 사기 위해 돈 모은다' 61%, 원격 수업, '학습 부진아 지도 안 된다' '초등 교사' 73%, '중·고등 교사' 75%
- 제 60호 | 밀레니얼 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밀레니얼 세대의 관계 핵심은 취향이다' | 보이스피싱 피해 실태, 대통령 지지도 하락 요인 분석
- 제 61호 |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의 시선, '거리를 두고 싶은', '사기꾼 같은' | 코로나19 이후, '체중 증가했다'
- 제 62호 | 한국인의 환경 문제 인식 '과거보다 현재 더 나빠졌고, 미래는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것' | 올해 2사분기 합계출산율, '0.84명으로 역대 최저!'
- 제 63호 | 대학생 거의 절반인 44%, '생활 속 무력감' 느껴 | 정당 지지도 기반 유권자 분석,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미래통합당)'보다 핵심 지지층이 더 많아!
- 제 64호 | 한국인의 일상생활, 코로나19 이전 대비 44% 수준으로 위축된 삶 살고 있다! | 올 추석에 어른께 가장 듣고 싶은 말, '추석에 안 와도 된다' 46% | '동영상 플랫폼' 이용률, '10대' 청소년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다(87%)
- 제 65호 | 택배 노동자의 하루, '12시간 노동, 점심시간 12분, 2분 50초마다 1개 물량 처리' | 한국, 8월말 기준 OECD 국가 중 경제와 코로나19 방역 양쪽 모두 1위 | 방탄소년단 빌보드 차트 1위, 경제적 효과로 1조 7천억 원 규모! | 우리 국민 추석, '부담/염려 더 큼' 60%
- 제 66호 | 비대면 시대, 교회의 공동체성은 소그룹 활동에 달려있다! | 한국인의 91%, '현재 고민거리 갖고 있다!'
- 제 67호 | 교인 수 50명 이하 교회가 전체 교회의 절반 차지 | 코로나19 우울증 진단, 20대 여성 전년 대비 38% 증가, 코로나19 이후 화상회의 앱 '줌'(ZOOM) 이용자, 9월 한 달간 707 만 명으로 역대 최대!
- 제 68호 | 트로트 전성시대! | 코로나19 이후 한국인 생활의 변화 '체중 증가/운동량 감소',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 '유튜브' 1위

역대 [넘버즈] 주요 내용

69호-79호

- 제 69호 | 교회 출석자 중 코로나19 이후, '아예 주일 예배 드리지 않은 개신교인' 증가세! | 전 세계 국민의 86%, 세계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복귀하는 것보다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세상으로 크게 변화하기를 원해! | 미국인,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 역대 가장 높아!
- 제 70호 | 한국 개신교인의 '공교회 인지도', 19%만 공교회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 | 우리나라 임상 의사수, 인구 1,000명 당 2.4명으로 OECD 31개국 중 29로 최 하위권
- 제 71호 | 대한민국 불법 도박, 연간 81.5조 원의 대규모로 은밀히 행해지고 있어! | 2020년 신규 주식 계좌 연령, '2030세대' 57% 차지!
- 제 72호 | 남성 육아,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89%) '필요하다' | '코로나 불안도' 61%,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의 불안감 보임
- 제 73호 | 우리 국민, '비혼 출산 찬성' 31%, '비혼 동거 찬성' 60% | 올해 한국인, 작년보다 '신체-정신 건강 모두 나빠졌다!' | 조직의 리더로 갖추어야 할 조건과 자질 1위, '책임감' 54%
- 제 74호 | 한국인의 웰다잉(Well Dying), '나를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죽고 싶다' 85% | 종교를 믿는 긍정적 효과, '긍정적 감정, 윤리적 행동, 올바른 가치관' | 서울시 1인 가구, 50대 이후 행복도 급격하게 떨어짐
- 제 75호 | 한국인의 웰다잉(Well Dying), '나를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죽고 싶다' 85% | 종교를 믿는 긍정적 효과, '긍정적 감정, 윤리적 행동, 올바른 가치관' | 서울시 1인 가구, 50대 이후 행복도 급격하게 떨어짐
- 제 76호 | 국내 기업 2개 중 1개 재택 근무 실시 → '코로나19가 기업 문화를 바꾼다! |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 83.3세, 전년 대비 0.6세 증가 | 한국인 45세 때 1,484만 원으로 최대 흑자, 59세부터 적자 인생으로 전환
- 제 77호 | 코로나19 시대, 기부 금액 감소 기부 중단율 높아져! | 코로나 크리스마스, 미국인 4명 중 1명 '작년보다 성탄절 예배 참석 줄일 것' | 성인 남녀 10명 중 9명, '송년 모임 취소했다'
- 제 78호 | 2020년 넘버즈 Top 8
- 제 79호 | 올해 말 자영업자 25만 가구 현금 바닥 예상(유동성 위기)! | 신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대선 후보 지지도 평균(전화면접 조사 기준), '이재명' 23%, '이낙연' 17%, '윤석열' 17% | 코로나 장기화로 코로나블루 상승, 전국민 62% '우울하다'
- 제 80호 | 전국의 아동 학대, 13분마다 1건씩 신고되고 있어! | 1월 초, 국민이 생각하는 일상 회복 수준, '코로나 이전의 40% 수준'

목회데이터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 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CBS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실장 | jy0113@mhdata.or.kr
박태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사 | mhdata@mhdata.or.kr

MOU 기관 | (사)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햇불회